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 및 복지욕구

Use and Needs of Social Service for the Disabled



윤 상 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약 60 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크게 경제적 지원 사업과 시설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로 하여금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과 같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에서부터, 통신사용료나 대중교통수단 운임비 감면 등과 같은 각종 요금 및 이용료 감면제도, 그리고 LPG 차량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소득세 추가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22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주거서비스, 재활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현 수준에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복지욕구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장애인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¹⁾,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79.4%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 실태조사의 71.7%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서,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률이 가장 높은 장애는 신장장애로서 전체의 97.2%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92.0%), 발달장애(81.0%), 지체장애(87.0%)도 장애인등록률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심장장애(34.1%), 안면장애(45.6%), 간장애(51.3%), 호흡기장애(51.7%) 등 내부장애의 등록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장애가 비교적 최근에 장애범주에 포함된 데다가, 내부장애의 경우 외부신체기능, 감각 및 정신장애 등 전통적인 장애와 달리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 장애인등록 현황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고 있는 장애인등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표 1.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7.0	76.5	78.4	62.2	76.5	92.0	81.0	68.7	97.2	34.1	51.7	51.3	45.6	61.9	54.9	79.4
아니오	10.8	22.5	20.0	36.9	19.6	7.7	17.3	29.7	1.8	64.1	46.8	46.0	37.0	35.7	43.2	18.8
신청중	0.6	0.5	0.2	0.5	3.9	0.3	1.7	1.0	0.0	1.0	0.0	2.7	0.0	0.0	2.0	0.6
보훈처 등록	1.7	0.6	1.5	0.4	0.0	0.0	0.0	0.5	1.0	0.9	1.4	0.0	17.4	2.3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89)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570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62

주: 무응답 2건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받은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도 23.8%로, 혜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69.3%로 전체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약간 받고 있다’는 응답이 28.7%가 있었으며, ‘매우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장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각각 55.4%, 48.5%, 47.0%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비교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유형은 신장장애로 8.0%가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신장애(7.6%)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2. 경제적 지원사업의 수혜율

장애인들이 경제적 지원사업의 수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수혜율을 알아보았다.

다섯째, 기타 사업은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

표 2.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이 받음	1.4	2.1	1.1	1.9	0.0	3.5	0.0	7.6	8.0	2.3	0.0	0.0	0.0	4.0	5.3	2.0
약간 받고 있음	28.4	30.1	25.7	24.3	29.0	32.9	33.0	34.6	41.2	20.6	33.9	24.6	38.9	29.3	18.3	28.7
별로 받지 못함	27.0	25.5	24.7	26.9	39.2	26.4	23.7	21.3	22.3	21.7	20.7	36.5	20.7	23.2	19.8	26.2
거의 받지 못함	43.3	42.4	48.5	47.0	31.8	37.1	43.4	36.4	28.6	55.4	45.4	39.0	40.3	43.4	56.7	4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56)	(529)	(447)	(368)	(39)	(265)	(47)	(138)	(103)	(37)	(40)	(18)	(5)	(25)	(21)	(4,338)
전국추정수	866,076	203,264	172,044	141,425	15,176	101,732	18,446	53,057	39,157	14,202	15,498	6,869	1,991	9,581	7,987	1,666,505

주: 비례당 1,123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19.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10.6%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수혜율이 전체의 29.0%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16.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4.5%),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인 자립자금의 경우 전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험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제도의 수혜 요건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애유형별 소득보장 사업에 대한 수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정신지체장애인 및 간질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에 대한 수혜율이 33.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23.8%),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19.2%),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15.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의료보장 사업에 대한 수혜율을 살펴보면,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은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다. 이는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의 장애인 자가

운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는 보편적 수급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사업의 수혜 대상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제도 내적 요소와 아울러 자동차의 보편화라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45.0%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각각 33.1%, 30.7%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수혜율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의 특성상 보행 및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장애인이 외출 및 사회활동의 수단으로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함께 정보화 추세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점차 활성화 되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수혜율이 78.9%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혜율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도 60.8%로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수혜율은 42.8%, 세금공제 및 면제의 수혜율은 36.9%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타 사업 중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17.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전체의 23.8%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경제적 지원사업 수혜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지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24.1	33.1	30.4	20.7	27.2	46.7	22.1	61.9	44.2	10.0	13.7	12.1	20.3	6.4	51.3	29.0
장애아동부양수당	2.3	5.7	0.0	0.0	0.0	15.3	15.7	5.0	6.4	0.0	0.0	0.0	0.0	0.0	0.0	3.4
장애인자녀교육비	14.6	14.6	17.6	16.1	43.9	28.3	15.2	21.8	22.3	17.2	8.7	0.0	0.0	0.0	32.4	16.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5.6	3.7	1.6	2.5	0.0	2.7	9.1	0.0	0.0	10.5	0.0	0.0	0.0	0.0	23.9	4.5
장애인의료비지원	19.6	28.3	21.3	24.1	46.2	32.7	19.9	37.8	49.3	17.2	4.7	27.3	0.0	13.8	20.2	23.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29.2	36.9	36.9	32.7	68.3	47.3	20.1	61.9	33.7	26.9	16.4	0.0	-	0.0	18.5	33.5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14.2	28.7	15.3	21.3	0.0	4.6	0.0	3.4	12.4	0.0	12.0	43.5	0.0	0.0	0.0	15.4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17.9	15.6	12.9	45.3	23.6	14.3	0.0	4.1	7.7	0.0	0.0	0.0	0.0	0.0	32.9	19.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51.6	43.2	37.3	35.6	39.6	42.2	71.9	16.0	50.0	27.5	30.2	41.7	36.5	28.4	21.2	45.0
LPG 연료 사용 허용	36.6	36.3	24.6	27.5	28.9	33.1	52.6	14.1	39.1	22.7	17.6	38.3	9.9	15.7	21.3	33.1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27.4	44.2	20.8	29.0	36.0	46.5	68.1	22.8	39.7	25.8	33.0	27.0	21.0	4.7	34.3	30.7
세금공제 및 면제	35.1	46.2	30.7	36.3	26.7	48.5	71.2	30.4	36.8	31.5	32.3	13.6	52.5	0.0	11.0	36.9
교통관련요금감면및 할인	66.1	52.3	62.9	53.8	49.0	52.4	68.1	49.8	76.6	41.2	49.1	52.4	48.7	51.1	28.6	60.8
통신관련요금감면및 할인	82.8	78.7	81.0	70.1	77.3	75.8	77.0	63.1	82.4	53.9	70.9	58.9	58.0	71.7	50.9	78.9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46.6	34.1	41.3	41.7	32.5	41.0	55.6	25.5	54.2	32.5	28.5	48.3	29.4	28.4	5.9	42.8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7.6	15.7	14.3	15.1	13.0	25.2	5.7	29.5	26.3	5.4	13.2	10.6	26.4	14.5	0.0	17.3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2.2	15.4	15.1	19.6	48.2	81.1	77.4	0.0	0.0	0.0	0.0	0.0	-	0.0	0.0	23.8

주: 중복응답임.

3.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을 이용한 경험은 있는지와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률은 3.4%로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기관으로서 전체의 13.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재활병·의원과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이 각각 7.9%, 7.2%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장애인복지기관과 재활병·의원이 이용률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두 기관이 주로 장애인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재활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취업과 교육부문의 대표적인 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이용률은 각각 6.7%, 5.9%로 나타났다. 순위 면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취업과 교육이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두 기관의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0.2%), 장애영유아생활시설(0.4%), 중증장애인요양시설(0.7%), 점자도서관(0.9%), 수화통역센터(1.0%) 등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시설이 주로 특정 계층(저소득층)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률이 12.3%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용률이 9.6%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기관인 장애인복지기관의 경우 이들 장애인의 이용률은 발달장애인 62.3%, 정신지체장애인 36.2%로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안면장애(0.0%), 장루·요루장애(0.0%), 간장애(0.5%), 호흡기장애(1.8%), 간질장애(1.3%) 등 2000년 이후 장애범주에 포함된 내부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률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내부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기관의 설치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 희망률은 14.3%로 나타났다.

22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재활병·의원으로서 전체의 40.2%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관이 재활병·의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40.1%의 이용 희망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의 이용 희망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들 기관이 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볼 때,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 희망률이 높은 기관은 이동지원서비스센터로서 전체의 31.5%가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심부름센터(24.5%), 장애인자립지원센터(22.1%), 장애인고

표 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10.7	15.2	11.0	11.9	17.8	36.2	62.3	18.4	8.9	10.1	7.8	0.0	0.0	0.0	14.8	13.7
장애인생활시설	1.5	0.5	2.5	0.0	0.0	5.1	2.5	5.0	2.9	0.0	4.2	0.0	0.0	0.0	0.0	1.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0.5	1.2	0.0	0.0	0.0	1.9	1.8	3.6	0.0	0.0	0.0	0.0	0.0	0.0	0.0	0.7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2	0.0	0.0	1.2	0.0	1.8	3.2	0.0	0.0	0.0	0.0	0.0	0.0	0.0	0.0	0.4
사회복지시설	0.2	0.0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그룹홈	0.6	0.0	0.0	0.0	0.0	4.0	0.0	0.0	0.0	0.0	0.0	0.0	0.0	0.0	-	0.8
주간·단기보호시설	1.1	4.5	0.0	3.6	0.0	17.1	13.4	0.0	0.0	0.0	0.0	0.0	0.0	0.0	0.0	3.5
재활병·의원	9.5	12.5	3.1	3.9	0.0	7.9	2.9	5.5	2.4	3.6	0.0	9.8	0.0	0.0	0.0	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	2.5	4.2	1.2	11.3	10.0	8.0	8.5	3.9	0.0	0.0	0.0	0.0	0.0	0.0	2.7
장애인전용체육관	3.5	6.5	3.0	3.9	0.0	10.0	32.3	0.0	0.0	0.0	0.0	0.0	0.0	0.0	0.0	4.3
특수학교·특수학급	0.7	2.8	3.6	5.3	6.7	51.4	67.0	0.7	0.0	0.0	0.0	0.0	0.0	0.0	3.2	5.9
특수교육지원센터	0.5	0.0	0.9	3.9	0.0	24.9	30.7	0.0	0.0	0.0	0.0	0.0	0.0	0.0	0.0	2.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2.8	0.0	0.0	0.0	0.0	3.0	0.0	0.0	9.0	0.0	0.0	0.0	-	0.0	0.0	1.8
점자도서관	0.1	0.0	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수화통역센터	0.0	0.0	1.2	7.0	1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심부름센터	0.5	1.4	4.1	0.0	0.0	1.2	0.0	2.9	3.6	0.0	0.0	0.0	0.0	0.0	0.0	1.1
이동지원서비스센터	2.5	7.0	5.9	0.0	0.0	1.0	16.9	1.7	13.2	3.2	0.0	0.0	0.0	0.0	0.0	3.5
장애인정보교육기관	8.0	6.2	10.5	4.6	0.0	6.3	0.0	4.3	12.8	0.0	0.0	0.0	0.0	0.0	0.0	7.2
장애아동보육시설	0.3	2.7	0.7	3.1	0.0	13.5	14.8	2.5	0.0	0.0	0.0	0.0	0.0	0.0	0.0	2.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7.2	4.7	6.0	3.4	8.9	11.7	6.3	5.7	6.3	13.9	5.0	0.0	0.0	0.0	10.3	6.7
교통안전공단	3.4	1.8	0.6	4.5	0.0	0.0	0.0	0.0	0.0	8.6	0.0	0.0	0.0	0.0	0.0	2.5
장애인자립지원센터	3.1	2.0	1.8	1.3	0.0	4.8	8.1	0.0	0.0	0.0	0.0	0.0	0.0	0.0	0.0	2.6
전체	2.7	3.3	3.0	2.7	2.7	9.6	12.3	2.7	2.9	1.8	0.8	0.5	0.0	0.0	1.3	3.4

주: 중복응답임.

용촉진공단(20.1%)도 평균을 상회하는 이용 희망률을 보였다. 이들 기관들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취업 및 원활한 이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용 희망률이 낮은 하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생활시설(0.8%), 점자도서관(1.2%), 장애아동보육시설(1.3%), 수화통역센터(1.6%), 특수학교·특수학급(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관이 주로 특정 연령대(아동기)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희망이 저조한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 희망률이 36.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용 희망률이 25.8%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장애(22.5%), 간질장애(19.9%), 정신장애(16.8%), 심장장애(16.0%) 등의 장애인복지

표 5.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40.3	37.9	36.9	33.4	43.7	56.4	84.2	35.1	41.8	46.6	37.6	28.8	42.5	24.4	49.3	40.1
장애인생활시설	14.6	19.7	11.3	12.4	21.9	32.1	23.7	29.0	16.0	18.1	18.2	11.8	26.2	4.3	28.1	16.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4.9	31.5	12.1	13.9	17.5	26.3	14.7	33.5	22.0	25.0	27.4	20.3	17.5	14.7	28.3	18.5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6	0.9	0.2	0.9	3.9	2.3	5.1	1.0	0.0	1.1	0.0	0.0	0.0	0.0	0.0	0.8
사회복지시설	1.6	1.9	1.7	2.7	4.0	19.0	24.6	23.1	0.0	3.0	4.5	3.0	0.0	0.0	8.0	3.8
그룹홈	4.0	5.8	4.8	3.8	7.8	25.0	41.8	13.7	2.7	9.5	8.9	5.7	0.0	0.0	15.3	6.4
주간·단기보호시설	8.3	21.4	8.2	9.9	7.7	22.0	35.5	13.0	17.3	20.7	14.0	5.9	24.0	5.0	18.0	11.9
재활병·의원	44.1	51.5	32.8	30.1	30.1	30.8	38.6	26.7	32.6	43.1	41.6	34.9	44.6	24.7	33.7	4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5	6.9	11.4	8.5	18.1	36.6	40.6	23.6	12.3	8.8	9.2	2.4	27.3	4.5	29.0	12.7
장애인전용체육관	15.7	13.6	13.7	9.2	6.0	28.9	51.0	13.2	15.0	9.4	6.5	14.7	44.6	4.8	19.2	15.2
특수학교·특수학급	0.9	2.5	1.1	1.9	8.4	33.7	78.2	2.1	0.0	0.9	0.0	0.0	0.0	0.0	2.8	3.9
특수교육지원센터	2.2	2.2	3.1	2.9	6.0	29.9	64.3	4.5	0.0	3.2	0.0	0.0	26.0	0.0	11.1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3	7.7	10.3	7.4	6.3	32.7	38.9	13.9	12.1	13.4	6.5	6.6	33.4	7.4	24.7	11.4
점자도서관	0.4	0.3	7.5	1.0	0.0	0.3	1.8	1.0	0.0	0.9	0.0	0.0	0.0	0.0	0.0	1.2
수화통역센터	0.3	0.7	1.8	8.5	5.6	2.0	1.8	0.5	0.0	0.9	1.4	0.0	0.0	0.0	0.0	1.6
심부름센터	22.9	29.1	25.3	21.2	17.8	25.1	33.1	23.9	25.0	34.4	39.4	28.1	8.7	16.1	28.7	24.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2	44.5	30.6	22.3	25.8	25.9	37.8	25.7	41.2	42.8	48.1	39.4	17.9	21.4	29.7	31.5
장애인정보교육기관	18.1	9.0	15.1	12.6	15.9	34.6	60.4	23.4	21.8	13.2	10.5	11.3	60.2	7.2	22.0	17.4
장애아동보육시설	0.5	1.6	1.2	1.7	3.9	5.3	15.2	0.6	0.0	3.0	0.0	0.0	0.0	0.0	2.9	1.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8	11.7	18.8	13.2	21.8	38.9	43.8	26.9	23.3	18.9	12.8	19.5	51.2	17.5	34.5	20.1
교통안전공단	10.7	6.7	8.9	8.4	5.8	13.0	9.3	9.6	9.2	13.2	8.4	8.2	44.6	2.5	13.7	9.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21.9	15.7	20.8	14.7	22.1	46.7	59.5	25.3	27.5	22.1	17.5	10.7	26.6	15.0	38.1	22.1
전체	13.4	14.7	12.6	10.9	13.6	25.8	36.5	16.8	14.5	16.0	14.2	11.4	22.5	7.7	19.9	14.3

주: 중복응답임.

기관 이용 희망률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 희망률 면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장애유형들이 대부분 정신장애인과 내부장애인이 라는 결과는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및 복지욕구로서 장애인들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48.9%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료보장으로서 19.0%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소득보장은 1.4% 포인트 낮아진 반면, 의료보장은 1.1%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이외에도 주택보장(4.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3.8%),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3.7%) 등이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료보장(8.3%)보다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17.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1.9%), 특수교육의 확대·개선(9.1%)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간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보장(34.2%)보다 의료보장(42.8%)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각 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2순위로는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생계보장(9.9%), 주택보장(8.3%),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5.9%),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5.2%) 등이 중요한 2순위 요구사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3순위로는 주택보장(14.9%),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9.7%), 의료보장(9.5%),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8.1%),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지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득보장	50.8	47.9	50.4	45.5	51.0	44.3	31.9	53.9	47.4	43.8	40.1	34.2	57.9	51.3	42.0	48.9
의료보장	17.9	22.9	18.6	20.9	13.5	10.1	8.3	14.2	22.5	26.4	39.5	42.8	0.0	33.6	18.1	19.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7	2.6	4.2	4.0	6.4	6.0	11.9	3.0	3.4	0.9	2.8	2.7	8.7	2.5	5.1	3.8
세제지원 확대	1.9	1.1	1.1	0.7	1.8	1.0	0.0	0.5	1.8	1.0	1.0	0.0	0.0	0.0	0.0	1.4
편의시설 확대	3.4	2.5	1.8	1.2	2.3	1.1	0.0	2.1	2.8	2.8	0.0	6.6	8.7	2.6	2.7	2.6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2.9	3.4	2.0	2.1	0.0	0.7	1.7	1.0	1.7	2.7	0.0	0.0	0.0	0.0	2.4	2.4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1.8	3.5	1.7	3.1	3.7	2.1	1.6	2.0	3.8	6.5	1.6	2.7	0.0	0.0	0.0	2.3
주택보장	4.2	3.4	3.4	3.7	6.0	6.0	1.6	5.3	5.6	3.8	2.5	3.0	0.0	0.0	0.0	4.0
결혼상담 및 알선	0.6	0.7	0.5	0.5	2.0	1.6	0.0	0.5	0.0	0.9	0.0	0.0	6.5	0.0	1.9	0.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	2.1	2.6	3.0	0.0	2.5	5.3	2.6	0.0	1.8	1.1	0.0	9.5	0.0	0.0	2.4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1.2	1.2	1.6	2.3	1.8	0.0	0.0	0.0	1.0	0.0	2.6	5.9	0.0	0.0	2.7	1.3
특수교육의 확대·개선	0.2	0.0	0.4	0.2	0.0	5.6	9.1	0.0	0.0	0.0	0.0	0.0	0.0	0.0	0.0	0.6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 확대	0.5	0.3	0.0	0.7	0.0	0.0	0.0	0.0	2.8	0.9	0.0	0.0	0.0	0.0	0.0	0.4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	2.0	3.2	1.5	1.9	2.0	6.3	5.2	2.3	1.7	0.8	1.3	0.0	0.0	2.7	0.0	2.3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0.8	0.3	0.8	0.6	5.7	1.5	3.2	0.5	0.0	0.0	0.0	0.0	0.0	0.0	2.3	0.8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	2.6	2.9	3.4	5.5	0.0	6.4	17.5	8.1	1.8	3.0	4.9	1.9	0.0	4.8	11.1	3.7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2.3	1.4	4.1	2.6	0.0	3.7	1.4	3.1	1.7	1.9	1.2	0.0	8.7	0.0	11.6	2.5
기타	0.3	0.3	0.2	0.2	0.0	0.4	1.3	0.5	1.0	0.0	0.0	0.0	0.0	0.0	0.0	0.3
없음	0.4	0.4	1.8	1.4	3.8	0.6	0.0	0.5	1.0	2.8	1.3	0.0	0.0	2.5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8)	(686)	(565)	(586)	(51)	(285)	(59)	(199)	(106)	(108)	(77)	(35)	(12)	(40)	(38)	(5,435)
전국 추정수	990,077	264,152	218,057	224,928	19,827	109,081	23,259	76,449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8,540

주: 무응답 31건 제외.

5. 정책적 함의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는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보장사업, 의료보장사업, 자가운전지원사업, 세금 및 요금 감면사업, 기타 사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장애인의 수혜율이 커다

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업 영역별 장애인의 평균 수혜율을 살펴보면, 자가운전지원사업이 74.6%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세금 및 요금감면사업 64.1%, 의료보장사업 17.1%, 기타사업 15.0%, 소득보장사업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사업과 의료보장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수혜율이 낮은 것은 이들 사업이 주로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자가운전지원사업과 세금 및 요금감면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표 7〉은 경제적 지원사업의 포괄성, 즉 적용 대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소득보장 사업의 경우 주로 수급자 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을 배제한 수급자 장애인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보장사업, 자가운전 지원사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사업의 수준이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 및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의 급여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수당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공공의료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국내 장애인 경제적 지원사업 수급 요건

소득수준	소득보장			의료보장		자가운전 지원		세금 및 요금 감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 기구 지원	승용자동차 세금 면제	장애인 차량 LPG 연료비 지원	대중교통 요금 감면	통신비 요금감면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수급자	○	△	○	○	○	○	○	○	○	○
차상위 이하	×	×	○	△	○	○	○	○	○	○
차상위 이상	×	×	×	×	○	○	○	○	○	○

주: ○는 대상자 전체 수급 요건 충족, △는 일부 수급 요건 충족, ×는 수급 요건 불충족을 의미함.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19.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태와 함께 지속적인 장애